

소년범죄 추이에 관한 세대 간 분석*

박 경 돈

국문요약

소년범죄의 변화에 관한 단기간 분석과 대응은 장기간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범죄의 종단적 추이를 고찰·분석하고 범죄예방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년범죄의 특징과 추세, 영향요인, 추세론의 연령, 시기, 동료 효과로 나누어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1982년부터 소년 형법 범죄의 비중이 성인 형법 범죄의 비중을 계속 초과하였다. 특히 소년 형법 범죄의 비중이 성인보다 훨씬 더 높아 소년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잘 목도된다.

선형적인 추세를 가정한 APC 기법과 그렇지 않은 APCD 기법의 통계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한 결과, APC 기법이 소년집단의 영향력을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범죄율, 형법 범죄율, 특별법 범죄율에 관한 영향력은 APC보다 APCD 분석 결과가 약 1/2 정도 낮고 U자형의 완만한 추세를 보인다. APCD 분석 결과는 총범죄율과 형법 범죄율이 15세까지 증가하다가 하락하였다. 또한, 모든 범죄의 영향력은 1992년 시대 집단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였지만, 선형적으로 급증하지 않았다. APCD 분석 결과에 따른 최근 범죄율의 영향력을 보면, 시대 집단의 범죄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주제어: 동료 분석, 총범죄율, 형법 범죄율, 특별법 범죄율, APC 기법과 APCD 기법

I. 서론: 소년범죄의 추세적 이해

최근 소년범죄의 폭력성과 지속성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소년범죄는 성인 범죄처럼 매우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최영신·한민경·라광현 외, 2018). 성인과 달리 자기 책임이 거의 없어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은 기대보다 더 어렵다. 특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성인기의 재범률이 높아(진혜민·배성우, 2012) 우려스럽다.

소년범죄는 개인 차원과 가족 차원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소년 개인의 수업 참여와 학업 향상을 방해하여 자발성과 사회성을 감소시킨다. 개인 심리적으로도 범죄자로 낙인되면 성인기 이후에도 안정된 사회생활이 힘들다. 가정 및 가족 차원에서 보면, 소년범죄는 건전한 가족 형성을 방해한다. 범죄행태는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고 새로운 가정 문제를 일으켜 화목한 가족생활을 파괴한다.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그동안 정부는 소년범죄의 직·간접적인 문제점에 대응하여 대해 정책 개입해왔다. 정부는 성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소년범죄 감소에 대한 각종 대책을 세워(법무부, 2018).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법무부(2018)는 성인 범죄와 다른 차원의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간 정부의 소년범죄 감소정책이 효과적인지 논의가 분분하다(법무부, 2018).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조치가 소년범죄 감소에 긍정적인지 그리고 그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안 마련에서 중요한 점은 소년범죄가 성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기에(진혜민·배성우, 2012)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년범죄의 단발적·급작성이란 측면에서 범죄를 예방하려면, 소년범죄의 발생 강도, 유형, 원인을 횡단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의의가 있다. 단기간 급격한 사회 변동과 이에 수반된 소년범죄의 분석은 시급히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소년범죄의 단기간 변화에 치우친 분석은 장기간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범죄예방의 바람직한 대안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소년범죄의 장기적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년범죄의 발생 추이를 성인 범죄와 비교하여 시계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년범죄의 횡단적·단기적 분석을 통한 정책 처방보다는 종단적·장기적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이 소년범죄 예방에 적실성을 더 높인다. 이런 시각에서 본 연구는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을 장기간 추적하여 범죄의 연령, 시기, 집단의 효과를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본문 기술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은 소년범죄의 영향과 추세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소년범죄의 분석방법론에 관한 기술과 연구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범죄분석의 결과를 세밀하게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소년범죄의 예방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소년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1. 범죄의 영향요인과 특징

최근 소년범죄는 잔인해지고 성폭력 등의 범죄가 급증하였다고 한다(강일원, 2016). 성인의 형법 범죄자가 1966년 이후 증가하다가 199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소년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지선, 2007). 소년범죄는 1978년까지 증감의 혼합적 추세를 보였지만 다시 반등하여 2003년 이후에는 급기야 성인의 범죄 증가율을 넘어섰다(김지선, 2007). 소년범죄를 범죄 죄목별로 구분해보면, 재산범죄의 하락과 폭력 범죄의 증가로 요약된다(강태신·임영식, 2008).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증가는 성인 범죄의 증가세를 초과하였다.

많은 기존 연구는 소년범죄의 원인을 찾으려 하면 범죄 억제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범죄의 영향요인을 여러모로 찾았다. 최영신·한민경·라광현 외(2018)에 의하면, 2018년 이전 소년범죄에 관한

총연구물 중 소년비행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1/3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는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동질적인 변인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MacDonald, Haviland, & Morral, 2009). 반면, 일부 연구는 범죄 흉포화의 정도에 따라 영향 변인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Reingle, Jennings, & Maldonado-Molina, 2012). 소년범죄의 원인의 초점이 개인, 가족, 사회 환경으로부터 찾았다.

첫째, 어떤 연구들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특이한 성격이나 특성, 또는 인지적 상황에 관심을 두었다. 개인적 차원의 범죄 원인은 모델감과 같은 부정적 인식과 감정(이순래, 2002), 인터넷에 대한 반응 및 중독성(이성식, 2003), 자기제어 및 통제의 미숙(민수홍, 2006), 고교 학생의 범의식 결여(이성식, 2007), 긴장 및 스트레스(김준호·이동원, 1990) 등이라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개인 요인이 소년범죄 유발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다른 부류의 연구는 소년범죄의 원인이 가족이나 가정환경이라고 분석했다. 가정환경의 열악성, 가정 내 교육의 부족, 학업에 대한 가족의 압박(김준호·남재봉·박희원 외, 1990), 다문화 가정(전영실·신동준, 2012), 가정폭력(민수홍, 1997) 등 평범하지 않은 가정환경이 범죄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이선우·황은경, 2014). 특히 여러 환경 요인 중 가정환경은 소년범죄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요인이다.

셋째, 주변과 사회 환경의 위해성이 소년범죄에 영향이 크다는 연구가 있다. 학교 주변의 환경적 열악성과 악영향(김준호·박정선, 1991), 선정적·폭력적 문화, 스마트폰, PC 등 전자기기의 활용 등 대중매체(윤진·곽금주, 1991)가 소년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적 요인으로 거론된다(박경돈·박민정, 2010; 이창훈·김은경, 2009).

이 같은 소년범죄는 특정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파급된다. 첫째, 소년범죄의 직접적 악영향은 경제나 노동, 사회복지 등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부정적 효과로 나타난다. 소년범죄는 자신의 교육과 생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방해한다.

둘째, 소년범죄의 간접적 효과도 크다. 소년범죄가 발생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주변인들에게도 간접적·부정적 영향력을 발생시킨다. 소년 범죄자는 동료나 또래 집단, 선후배 집단의 범죄를 모방하는 경향이 크다. 소년범죄는 범죄 피해자의 가정 형성과 화합을 파괴하고 가해자 소년의 가정에까지 간접적 피해를 준다.

셋째, 소년범죄의 시기적 효과도 중요하다. 소년범죄는 시간적으로도 먼 미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소년범죄는 미래 성인기에 범죄의 재발 우려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소년의 범 죄나 일탈행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이를 사회에 전가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미래사회의 주역인 소년이 범죄를 경험하기에 건전한 국가 발전이 저해된다. 또한, 소년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소년인 경우가 많은데, 소년기의 범죄 피해 경험은 미래에 성인 간 불신을 높여 사회통합을 방해한다.

미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소년범죄는 건전한 직장 참여의 미비, 안정적 근로자의 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미래의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미래 복지재정의 재원 부담자인 노동자가 적어지면서 복지제공의 부실화와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낮춘

다. 결국 소년범죄의 직·간접적 효과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대한 현재와 미래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사회에 부과한다. 따라서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소년범죄는 예방하거나 감소해야 할 시급성이 크다. 이를 위해 좀 더 거시적·중단적 차원에서 소년범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범죄의 추세론: 연령, 시기, 동료 효과

1) 장기적 분석의 유용성

소년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년 범법자가 특정 연령대일 경우, 또래나 선후배 등 동료집단으로부터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조준현, 2004). 최영신 외(2018)에 의하면, 1990년대 범죄 동향 연구는 주로 약물 남용의 효과, 집단 비행의 효과, 범의식 상실과 비행 경향, 성범죄 가해, 학교 주변의 추세 등을 다루었지만, 범죄의 동료 간 영향력이 장시간 지속성에 관한 검증에 소홀하였다고 한다. 즉, 소년범죄가 집단의 상호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지 않았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소년범죄 연구도 소년의 가치관과 태도, 폭력 집단, 사이버상의 일탈행동, 보호 관찰 대상, 소년비행 행동, 교사 폭력, 저연령 소년의 비행 실태, 소년의 강력범죄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다(최영신 외, 2018). 하지만, 이들 연구도 소년범죄의 원인 발견에 치우쳐 소년범죄 발생을 중단적 시각에서 분석하지 않았다. 즉, 소년범죄 발생이 연령, 기간, 출생연도를 공유하는 집단 간 발생하는지 또는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지 않았다.

Church II, Tomek, Bolland et al(2012)은 소년범죄의 유발 경로를 횡단적으로 분석한 Church et al(2009)의 연구를 다시 중단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년범죄는 발생 초기 단계부터 꾸준하게 정책개입을 할 때 추가 범죄의 예방이 용이하다는 시간 요인의 중요성을 찾았다(Church II, Tomek, Bolland et al, 2012). Greenberg & Larkin (198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성인기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년범죄가 줄어들더라도 횡단적 연구는 소규모 표본과 저 대표성 표본 때문에 비판받는다. 특정 연령집단의 범죄가 줄어들더라도 그 아래 연령집단에 의해 범죄가 더 추가되는 특징이 있어 중단적 추이 고찰이 범죄추세와 예방책을 찾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한다(Greenberg & Larkin, 1985). 권해수·윤일홍(2015)도 소년범죄의 재범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횡단적 분석은 재범 가능자와 그들에 대한 정책개입을 고려하지 않고 현 범죄자만 고려하여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언제 또는 어떤 경우에 범죄에 관여되는지를 단기적 시각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분석할 때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2) 장기적 분석의 방법

소년범죄의 장기간 분석은 연령대, 사건 경험, 특정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첫째, 생애의 특정 단계의 연령 및 나이로 인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연령집단의 효과가 있다. 둘째,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을 가져서 다른 집단과 차별되는 사건공유 집단(코호트 집단) 또는 출생집단의 효과가 있다. 셋째, 특별한 시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되는 사건 발생의 차이가 있는 관찰 시점의 효과 또

는 시대 효과가 있다.

(1) 연령집단의 효과(또래 효과)

소년범죄의 발생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은 연령이다. 나이 또는 연령 효과는 소년이 성인으로 성숙해지며 발생하는 범죄의 변화 추이 및 차이를 의미한다. 소년법 규정에 따르면, 소년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의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강일원, 2019). 촉법소년과 같이 어린 소년범죄자는 성인기에 중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Loeber & Farrington, 1998). 소년범죄는 발생연령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범죄율도 상승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한다(현다경·김형모, 2018). 소년의 저 연령기에 발생한 범죄와 고 연령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변인은 차별적이고, 그 영향력이 다르다(Loeber & Farrington, 2001). 이에 연령대가 다른 소년집단의 범행은 차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동일 나이의 또래 집단과의 접촉은 소년범죄의 주요 변인이다. 고순창(2016)은 사회학습이론과 자기통제 이론을 한국아동·소년 패널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범죄 발생의 주요 변인임을 밝혔다. 이현철(2016)은 학업의 영향 변인은 부모 관계 등의 가정 변수인데, 가족 지원을 받아들이는 동일 연령대 집단의 인식과 행태에 따라 범죄 발생에서 차이가 크다고 한다. 또래 집단의 상호관계에 따라 범죄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김중곤(2018)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 증가에 따라 소년 말기에 비행이 최고조가 되는 현상은 성인의 연령 변화에 따른 범죄추세와 다르다고 한다. 따라서 소년의 접촉집단에 따라 범죄율의 증감이 달라지므로 연령 또는 또래 집단이 범죄의 주요 인자라는 것이다.

이에 소년 연령에 따라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감소·증가하는지에 관한 검증이 요구된다. Loeber, Stouthamer-Loeber, & Green(1991)은 연령 증가와 범죄 간 정(+)의 상관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소년범죄를 연령, 자기 자존감, 가족의 유대감 간 관계에서 연구하였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범죄 증가와 상관성이 높았다(Church II, Tomek, Bolland et al, 2012). 또한, 소년범죄의 흉포화 현상도 다른 연령대 집단과 비교하여 명확히 이해되어야 한다(Shumaker & Mckee, 2001; 최수형·박현수, 2014). 따라서 동일 연령 및 또래 집단과의 관련성에 따라 범죄 발생에 차이가 있어 소년범죄 분석에서 나이가 모형화되어야 한다.

(2) 사건공유 집단의 효과(코호트 또는 공유 사건의 효과)

특정 사건을 겪은 출생집단은 소년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일 수 있다. 소년이 동일한 시기에 특별히 겪는 교육적·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범죄의 추이가 변화될 수 있다. 특별한 정부 정책, 사회 급변이나 위기를 겪은 소년집단의 범죄는 이전과 다른 독특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정부가 범죄 검거 활동이 왕성하다면, 그 기간에 소년범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특정 시기에 공동체에 관한 긍정적 감정이 지배적이라면 소년의 일탈행동이 적고 범죄가 낮다(Hipp & Wickes, 2017). 소년 관련 특별한 정책과 사업이 존재한다면 소년집단의 범죄가 감소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수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출생연도 세대 집단은 소년의 범죄에 대한 영향요인이다. 사건 공유 집단의 규모에 따라서 소년범죄의 발생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조영오(2019)는 자기 통제와 비행 친구와의 관계가 소년 일탈의 주요 요인이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집단이라는 감정과 주변 환경이 상호 작용하여 소년들의 비행 가능성을 높인다(전병재, 1990). 손병덕·김정민(2017)은 일탈적 생활 태도와 그 시대의 사회적 지원은 범죄 피해를 증감시키는 변인임을 밝혔다. 일탈적 친구와의 교우 관계는 자기통제에 영향을 주고 동일 출생연도의 집단은 범죄적 행태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황적 행위이론(Situational Action Theory; Wikström, 2006; 2010; Wikström, Oberwittler, Treiber et al, 2017)은 범죄가 특정 범죄성향과 사회 환경이 결합한 결과라면서 이를 검증하였다. 범죄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범죄환경 변수와 일탈자의 범죄성향 변수가 상호 작용한 산물이라고 한다(Wikström 2006; 2010; Wikström et al, 2017). 범죄는 특정 성향의 집단이 특정 환경과 결부되어 나타나므로 동시대 집단의 효과로 추정된다.

특히 스트레스가 큰 환경이 만드는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이 소년범죄로 연결된다는 시각이 일반압박이론이다(General Strain Theory; Broidy & Santoro, 2018). 소년은 고도의 환경적 스트레스에 묶여 있거나 벗어날 방안이 없다고 느낄 때 범죄 등 부정적 행위에 빠진다(Agnew, 1992; 2017). 초창기의 압박이론은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안정적 보상이 미흡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발생하는 일탈행위에 관한 이론이다(Cloward & Ohlin, 1960). 더 나아가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좌절에 따른 불만족이 범죄성향으로 연결되는 일반압박이론으로 발전되었다(Agnew, 2017).

이처럼 사회적 압박이 강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 때 소년들의 범죄율이 높다. 높은 실업율과 경제적 불황이 빈곤과 연계되면 스트레스가 커지고 소년범죄가 증가한다(Simons, Johnson, Conger et al, 1997). 빈곤은 소년범죄 발생의 정(+)의 영향요인이라고 한다(김수정·정익중, 2017; 정익중, 2009; Brooks-Gunn and Duncan, 1997; Holzer, Schanzenbach, Duncan et al, 2008). 미시적인 차원에서 빈곤은 흔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불황기의 사회 지표로 측정된다. 따라서 경제불황기에 저소득과 빈곤 등과 같은 특수 사건을 동일하게 겪은 집단의 상호 작용이 소년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런 요인을 동료집단의 범죄 발생에 모형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시대 집단¹⁾의 효과(관찰 시점 또는 시기 효과)

소년범죄의 연도나 시점이 특별히 소년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 연도 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소년범죄의 추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면서 증감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소년범죄 추이는 시간적 요인의 결과물이다. 시대적 환경 변화가 소년범죄 원인이라면 범죄 해결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강일원(2019)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2007년에서 2016년까지의 시기에 약 40% 이상 심

1) '시대집단 - 연령집단 = 동료집단'의 틀을 이용하여 원 데이터를 시대, 연령, 동료의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변수를 구성하였다(Browning, Crawford, & Knoef, 2010). 어떤 소년의 시대 집단(year group)의 범죄 영향력이 크다면, 특정 조사 시점이나 시기와 접목된 해당 집단이 보인 효과이다.

하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범죄 양태도 변화한다(이현정·최재훈, 2019). 임재식(2008)은 시대변화와 소년 범죄 변화에 대응한 형법의 변화를 역설하며 범죄와 예방의 시대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양돈규(2000)는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 유형이 등장하기에 이에 따른 범죄행태도 변화된다고 한다. 고도 정보화 시대로의 이행에 따라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의 이용이 증대되어 정보 중독 및 비행, 사이버 범죄 등의 증가는 시대적 효과로 설명된다(양돈규, 2000). 중단적 데이터의 분석으로 시기적인 추세나 특성에 따라 소년범죄가 등락한다면, 시기적 요인이 접목된 시대 집단을 변수로 삼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다음과 같이 차별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첫째, 소년범죄의 추세를 중단적으로 분석하였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소년범죄자 수와 범죄율을 분석하고자 소년범죄의 추세는 범죄 발생 수와 비율의 변화로 고찰한다. 둘째, 범죄 발생 집단의 시기, 연령, 특별한 사건공유를 소년범죄의 요인으로 삼고 장기적 시계에서 분석한다. 셋째, 상대적인 관점에서 소년범죄와 범죄율을 성인 범죄 및 범죄율과 비교·분석한다. 인식적 측면에서 보면, 소년범죄가 감소하더라도 오히려 증가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노성호, 2009). 이처럼 소년범죄의 실제 발생과 일반인 인식 간의 차이를 메우는 작업은 성인 범죄의 비율과 비교하여 해소할 수 있다. 만약 성인 범죄와 비교하여 소년범죄가 많아지는 추세이면,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성인 범죄와 다른 양태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론

1. 분석 기법

1) 연령-시대-동료 분석

소년범죄의 분석 방법으로 주요 통계기법으로 연령-시대-동료 분석(age cohort analysis)을 사용하였다(Browning, Crawford, & Knoef, 2012; Yang, Fu, & Land, 2004). 동료집단(age cohort)은 사건공유 집단효과, 코호트 집단, 또는 출생집단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연령이나 시대가 변화할 때도 독특한 사건을 공유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태도나 습성을 가진다고 추정된 집단이다. 동료집단(age cohort)이 소년범죄에 영향력이 있다면, 정부의 소년범죄 대응이 해당 집단의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연령집단은 또래 집단이라고 하며, 출생연도는 다르지만 같은 연령대 집단이 나타내는 범죄의 속성을 찾는다. 본 연구에서는 13세(각 연령집단으로 표기) ~ 19세까지의 연

령대에 속한 7개 연령집단의 범죄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시대 집단의 영향력은 어떤 자료수집 시점의 효과로 같은 시대의 공유집단은 동질적인 행태를 지니며 그렇지 않은 집단과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소년범죄의 분석 기법은 연령, 시대, 동료로 구분하여 소년범죄자 수를 고려한 소년범죄 비율에 적용하여 총 6가지 방법(3가지 분석 기법 × 범죄 비율)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령별 소년범죄자 수(a)는 총범죄자 수, 형법 범죄자 수, 특별법 범죄자 수라는 3개의 범죄 데이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형법 범죄자 수는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 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 범죄의 수를 포함하고, 특별법 범죄자 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총 114개 특별법에 저촉된 범죄자를 모두 포함한다(통계청, 2021).

한편, 소년범죄자 비율(b)은 연령별 소년범죄자 수를 소년 인구수로 나누어 구성한다. 특히 총 소년범죄의 증감보다는 각 연령별 소년 인구의 범죄 증가를 분석하기 위해 소년범죄의 비율변수를 구축하였다. 총 소년범죄가 아닌 각 연령별 범죄 추이의 감소 및 증가에 대한 분석은 범죄 발생의 양상에 대한 엄밀한 고찰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소년범죄자 수(a) = 총 범죄(a1), 형법범죄(a2), 특별법범죄(a3)으로 구분한 소년범죄의 수
 소년범죄자 비율(b) = (연령별 소년범죄자 수(a1, a2, a3) ÷ 연령별 소년 인구수) × 100 = 총 범죄(b1), 형법범죄(b2), 특별법범죄(b3)으로 구분한 소년범죄의 비율

소년범죄 비율을 활용한 본 연구 모형의 가설을 모두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소년의 연령집단, 동료집단, 시대집단은 소년범죄 비율(총 범죄 비율, 형법 범죄 비율, 특별법범죄 비율) 증가에 양(+)의 효과가 있다.

2) 연령-시대-동료 분석의 변형

본 연구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세대 간 분석(APC)이다(Yang et al, 2004; 박경돈, 2014). 하지만, 기본모형을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첫째, 자료수집의 변화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수집한 소년범죄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연구 기간 중 자료의 수집 방법이나 범죄율 산정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소년범죄 자료의 불안정성, 자료수집 방법의 변화가 발생했다면, 소년범죄의 증감이 비선형적 추세일 수 있다. 따라서 비선형적 추세와 이를 반영하는 가정이 분석 기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장기적, 시간적, 연령적, 코호트적 추세를 회피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합리적인 제약을 가하는 방법이 바로 APC 모형의 제약을 가한 APCD 변형모형의 이용이다.

Chauvel & Schröder(2015: 300-302)의 주장에 따르면, Yang et al(2004)의 모형에 추세 제약을 가하는 변형기법이 더 우월하다고 한다. APCD 모형은 추세가 제거된(detrended) APC 모형으로 연령, 시대, 동료의 세 가지 효과가 선형추세 없는 변동 상황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모형 제약을

통해 선형추세와 변동을 분해한다(Chauvel, 2013; Wilmoth, 1990). 본 연구도 Chauvel(2013)이 제안한 APCD 모형과 APC 모형의 결과를 상호 비교한다. 장기 선형적 추세를 증시하는 APC 모형과 단기 변동과 장기 선형추세의 제거를 증시하는 APCD 모형 간 결과값을 비교하여 소년범죄의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한다.

$$Y^{apc} = \alpha_a + \pi_p + \gamma_c + \alpha_0 \text{rescale}(a) + \gamma_0 \text{rescale}(c) + \beta_0 + \sum_j \beta_j \chi_j + \epsilon_i$$

$$\sum_a \alpha_a = \sum_p \pi_p = \sum_c \gamma_c = 0, \text{Slope}_a(\alpha_a) = \text{Slope}_p(\pi_p) = \text{Slope}_c(\gamma_c) = 0$$

min(c) < c < max(c) (재인용 산식: Chauvel and Schröder, 2015)

2. 분석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소년범죄의 총합 데이터이며, 분석 기간은 1976~2017년까지 42년이다. KOSIS 통계자료는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의 2차 데이터를 통계청으로부터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https://kosis.kr>; 범죄자 연령 통계표). 통계분석에서는 동료집단, 연령집단, 시대 집단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소년범죄의 집단효과와 추이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동료집단은 1957년부터 2004년 동료집단까지 총 48개의 소년집단이다.

연령집단은 범죄가 현격히 적어 구분되지 않는 14세 미만의 연령집단(13세 집단으로 표기)에서부터 19세의 연령집단까지 총 7개의 소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08년 소년법이 개정되어 소년법의 연령을 18세까지로 변경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소년 연령집단에 19세 소년을 포함하였기에 20세 미만을 미성년 또는 소년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세의 연령집단을 미성년으로 통일되게 구분하여 소년범죄 집단에 포함하여 20세 이하 연령집단의 범죄 추이를 종단적으로 비교한다.

시대 집단은 1976년부터 2017년까지 총 42개의 소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동료집단의 수는 연령집단의 수와 시대 집단의 수를 합친 것이다. 소년 연령집단의 경우, 연령별 범죄 인식과 자기 통제력에서 차이가 클 것으로 예견되어(조영오, 2019) 1년 단위의 연령으로 세분화한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IV. 소년범죄의 코호트 분석 결과

1. 소년범죄의 변화

1) 소년범죄의 종단적 비교

소년범죄의 종단적 추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종단적 분석의 총 범죄 수, 성인 범죄 수, 소

년범죄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시 이를 총 범죄와 형법 범죄로 세분하여 분석·비교하였다. 소년범죄의 과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소년범죄의 발생 통계뿐만 아니라 성인 범죄와 비교한 상대적인 등락으로부터 영향받기에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성인과 소년의 총 범죄 수의 추이이다. 총 범죄의 추이는 다양한 범죄의 수만큼이나 성인 범죄의 수가 크다. 총 범죄 수의 경우, 최대값은 233만 건(A)이며, 최소값은 17.7만 건이며, 24년간 평균은 126.3만 건(G)이다. 소년의 총 범죄 수 평균은 7.5만 건(K)이다. 성인의 총 범죄 수 평균은 11.6만 건(I)이다. 평균 범죄 수를 이용하여 성인과 소년의 범죄 비율을 비교하면, 총 범죄 중에서 약 92.0%(I/G)는 성인 범죄, 약 5.9%(I/K)는 소년범죄이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과 달리 총 범죄 수 중 실제 소년의 범죄 비중은 작다.

〈표 1〉 총 범죄, 성인 범죄, 소년범죄의 비교

(단위: 천 건)

범죄 구분		비중	최대값	최소값	평균	총 범죄의 비중	집단별 비중
총 범죄	총계	100%	2,334 (A)	177	1,263 (G)	100%	
	형법 계	47% (A/B)	1,165 (B)	65	590 (H)	100%	
성인 범죄	총계	100%	2,152 (C)	156	1,162 (I)	92.0% (I/G)	
	형법 계	45% (C/D)	1,035 (D)	57	525 (J)	89.1% (H/J)	45.2% (J/I)
소년범죄	총계	100%	153 (E)	20	75 (K)	5.9% (I/K)	
	형법 계	67% (E/F)	103 (F)	7	50 (L)	8.5% (H/K)	66.7% (L/K)

둘째, 형법 범죄는 24년간 평균 59만 건(H)이 발생했다. 성인 형법 범죄는 평균 52.5만 건(J)이 발생했으며, 소년의 형법 범죄는 평균 5만 건(L)이 발생하였다. 연평균 형법 범죄 수를 성인과 소년의 범죄 비율로 비교하면, 성인 형법 범죄는 약 89.1%(H/J), 소년범죄는 약 8.5%(H/K)이다. 총 범죄 중 소년범죄가 약 6%인 것과 비교하면, 소년 형법 범죄의 비율이 약 2.5%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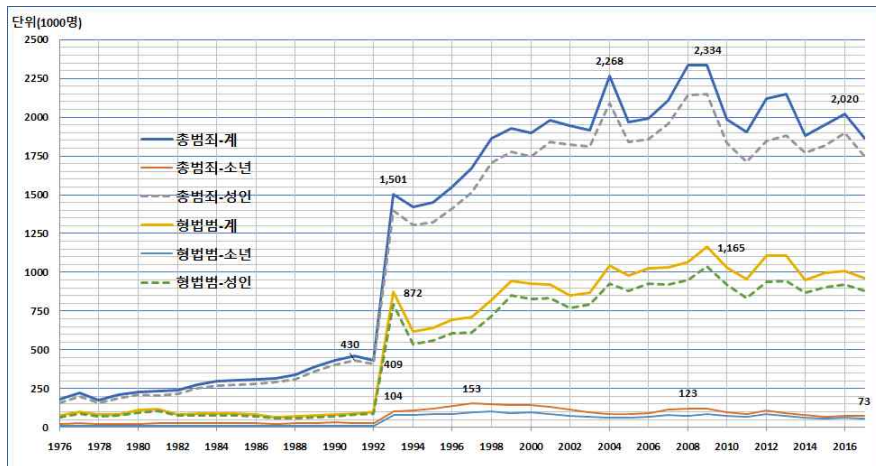
한편, 성인 범죄 중 형법범죄의 비중은 45.2%(J/I)이지만, 소년범죄 중 소년 형법범죄의 비중은 66.7%(L/K)이다. 즉, 성인과 비교하여 소년 형법 범죄율의 평균값이 21.5% 더 커서 소년집단은 형법 범죄를 많이 범한다. 따라서 성인 범죄 중 형법 범죄의 비중과 비교하여 소년범죄 중 형법 범죄의 비중이 매우 높기에 인구수가 적은 소년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잘 목격되며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분석된다.

2) 소년범죄의 종단적 추이

소년범죄의 종단적 그래프를 보면,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1976년부터 1992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3년 이후부터 범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범죄 데이터의 수집과 분류체계의 변화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 1993년 이후 증가한 총 범죄 수는 2009년에 최대값을 보이면서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형법 범죄도 총 범죄와 비슷하게 2009년도에 최고값인 116.5만 건을 보이다가 그 이후 다소 하락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인 범죄와 달리 소년범죄 대부분이 형법 범죄이다. 소년 형법 범죄는 급속한 하락이 없이 유지되었다. 성인 형법 범죄가 다소 하락한 것과 달리, 소년 형법 범죄는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소년범죄가 형법 범죄임을 의미한다. 2012년부터 총 소년범죄 중 형법 범죄는 80%를 넘어섰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약 80~81% 정도로 비율이 매우 높다. 지난 24년간 총 소년범죄 대비 소년 형법범죄의 비율이 66.7%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10년 동안 소년 형법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범죄유형별 성인과 소년범죄의 종단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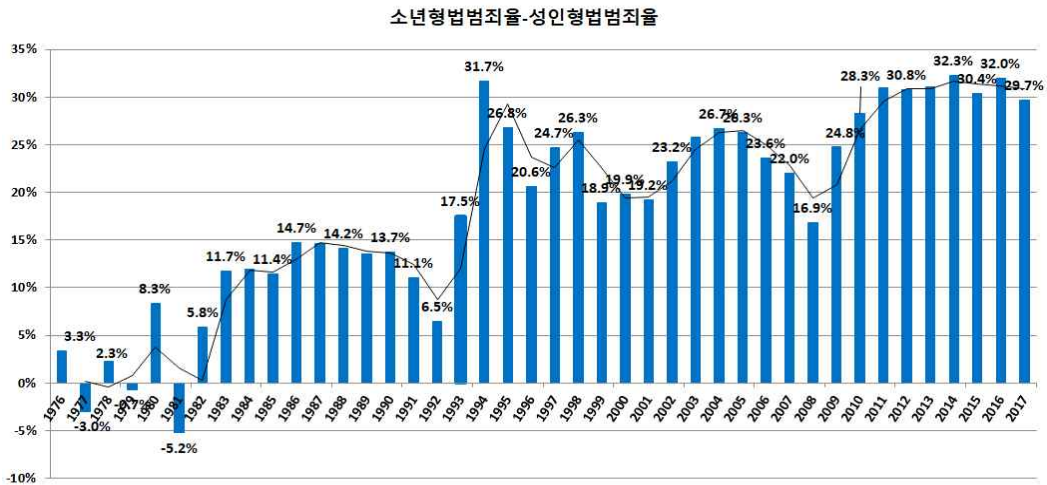
3) 성인 범죄와의 추이 비교

총 범죄 중 성인과 소년의 형법 범죄 비율을 각각 계산하고 추이를 비교하였다. 성인 형법 범죄는 최대값 56.9%, 최소값은 17.5%이다. 반면, 소년 형법 범죄의 최대값은 81.7%, 최소값은 28.6%이다. 최대값을 서로 비교하면, 소년 형법 범죄의 비중은 성인 형법 범죄보다 약 24.8% 더 높다. 최소값을 기준으로 보면, 소년 형법 범죄의 비중이 성인 형법 범죄보다 약 11.2% 더 높다.

소년 형법 범죄와 성인 형법 범죄의 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1976년~1982년에 이 두 집단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1982년부터 소년 형법 범죄의 비중은 성인 형법 범죄의 비중을 초과하여 1993년에는 약 31.7%를 기록하였다. 이 시점부터 소년 형법 범죄의 비중이 다소 낮아진 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두 집단 간 비중의 차이가 2011년 이후부터 약 30%이며 최대 차이는 2014년에 32.3%이다. 즉, 소년 형법 범죄의 비중이 성인 형법 범죄의 비중보다도 훨씬 높다면 사회적으로는 소년 형법 범죄가 두드러지게 목격된다. 이같이 소년범죄 중 형법 범죄의 급증세는 범죄 발생 수와 범죄 흉포화 측면에서도 크게 보도되어 대중적 관심이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그림 2〉 성인형법 범죄 대비 소년 형법 범죄의 종단적 차이



2. 소년범죄의 통계량

1) APC 기법의 분석 결과

소년범죄의 증감을 총범죄율, 형법 범죄율, 특별법 범죄율의 3개 범죄율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저출산으로 인한 소년 수의 감소를 반영하여 범죄 수보다는 범죄 비율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APC 방법과 APCD 방법의 결과값을 비교하여 장기적 추세가 존재하는지를 비교·검증하였다(Yang et al, 2004).

(1) 연령집단의 범죄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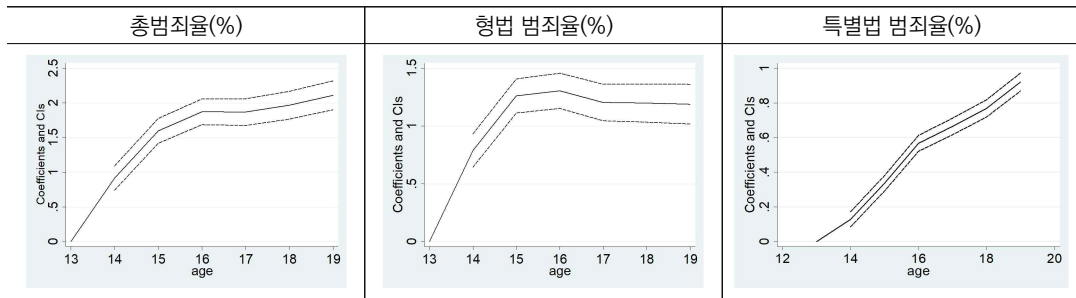
첫째, 총범죄율에 대한 연령집단의 영향력은 13세~15세 연령집단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총 범죄 발생의 2%대로 유지되었다. 약 16세~18세 연령집단의 총 범죄 영향력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19세 연령집단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총범죄율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19세 집단의 범죄 발생 영향력이 14세 연령집단의 범죄 발생 영향력보다 약 2.3배 더 높다 ($[b(\text{age}19) = 2.111] / [b(\text{age}14) = 0.917] \text{ vs } = 2.302$).

둘째, 연령집단의 형법 범죄율에 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14세 연령집단의 0.788인 회귀계수

와 비교하여 19세 연령집단의 회귀계수는 1.190로 약 1.5배 더 높다. 따라서 형법 범죄의 가능성은 14세 연령집단보다 19세 연령집단이 1.5배 더 높다. 하지만, 형법 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은 15세 연령집단이 가장 높으며 19세 연령집단에서 오히려 다소 낮아졌다.

셋째, 특별법 범죄율에 관한 연령집단의 영향력을 보면, 14세 이후 연령집단부터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별법 범죄의 발생률에 대한 14세 연령집단의 회귀계수는 0.128이지만, 19세 연령집단의 회귀계수가 0.921로 나타나, 범죄 발생 영향력이 무려 9.13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별법 범죄율의 선형적 급증이 과연 장기적인 추세로 나타나는지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연령집단의 범죄 영향력(APC 분석 결과)



〈표 2〉 소년범죄의 APC와 APCD 분석의 결과

변수	총범죄율(%)의 회귀계수		형법 범죄율(%)의 회귀계수		특별법 범죄율(%)의 회귀계수	
	APC (b1)	APCD (b4)	APC (b2)	APCD (b5)	APC (b3)	APCD (b6)
age_0013	-	-0.554***	-	-0.526***	-	-0.015
age_0014	0.917***	0.072	0.788***	0.105*	0.128***	-0.042**
age_0015	1.598***	0.431***	1.261***	0.424***	0.337***	0.009
age_0016	1.873***	0.404***	1.306***	0.298***	0.567***	0.081***
age_0017	1.869***	0.079	1.204***	0.060	0.665***	0.024(*)
age_0018	1.968***	-0.132*	1.199***	-0.078(*)	0.768***	-0.025(*)
age_0019	2.111***	-0.301***	1.190***	-0.283***	0.921***	-0.031**
per_1976	-	1.820***	-	1.303***	-	0.546***
per_1977	-0.045	1.685***	-0.046	1.183***	0.000	0.515***
per_1978	-0.273	1.386***	-0.138	1.024***	-0.135**	0.359***
per_1979	-0.412(*)	1.160***	-0.247	0.807***	-0.165**	0.308***
per_1980	-0.581(*)	0.870***	-0.297	0.679***	-0.284***	0.163***
per_1981	-0.798*	0.613**	-0.499*	0.495**	-0.299***	0.115*
per_1982	-0.893***	0.400*	-0.560**	0.372**	-0.333***	0.053
per_1983	-1.067***	0.112	-0.690***	0.162	-0.377***	-0.025
per_1984	-1.203***	-0.106	-0.800***	-0.047	-0.403***	-0.067

per_1985	-1.362***	-0.375*	-0.924***	-0.171	-0.438***	-0.130**
per_1986	-1.533***	-0.620***	-1.042***	-0.414**	-0.490***	-0.217***
per_1987	-1.792***	-0.988***	-1.230***	-0.624***	-0.561***	-0.303***
per_1988	-1.870***	-1.140***	-1.328***	-0.804***	-0.542***	-0.317***
per_1989	-2.051***	-1.377***	-1.468***	-1.019***	-0.583***	-0.390***
per_1990	-2.164***	-1.616***	-1.574***	-1.183***	-0.590***	-0.412***
per_1991	-2.311***	-1.848***	-1.688***	-1.359***	-0.624***	-0.473***
per_1992	-2.497***	-2.082***	-1.799***	-1.541***	-0.698***	-0.580***
per_1993	-1.214***	-0.924***	-0.648***	-0.451**	-0.566***	-0.478***
per_1994	-1.094***	-0.880***	-0.582***	-0.453**	-0.511***	-0.447***
per_1995	-0.777***	-0.620**	-0.451**	-0.395*	-0.326***	-0.286***
per_1996	-0.485*	-0.419*	-0.397*	-0.352*	-0.088*	-0.077
per_1997	-0.051	-0.107	-0.091	-0.128	0.040	0.027
per_1998	0.108	-0.011	0.089	0.027	0.018	-0.020
per_1999	0.185	-0.049	0.077	-0.097	0.108*	0.036
per_2000	0.575***	0.315	0.322*	0.113	0.253***	0.161**
per_2001	0.726***	0.358(*)	0.315*	0.041	0.411***	0.290***
per_2002	0.766***	0.279	0.342*	-0.027	0.423***	0.289***
per_2003	0.662**	0.120	0.346*	-0.055	0.317***	0.140**
per_2004	0.595**	-0.038	0.291(*)	-0.155	0.304***	0.104*
per_2005	0.599**	0.141	0.334*	-0.223	0.265***	0.035
per_2006	0.802***	-0.045	0.445**	-0.061	0.357***	0.102*
per_2007	1.317***	0.388*	0.691***	0.028	0.626***	0.340***
per_2008	1.777***	0.725***	0.753***	0.005	1.024***	0.713***
per_2009	1.725***	0.624***	1.028***	0.253(*)	0.697***	0.368***
per_2010	1.332***	0.150	0.886***	0.037	0.446***	0.085*
per_2011	1.193***	-0.083	0.831***	-0.064	0.362***	-0.018
per_2012	1.921***	0.496**	1.473***	0.466**	0.448***	0.036
per_2013	1.801***	0.307(*)	1.392***	0.370*	0.409***	-0.027
per_2014	1.755***	0.208	1.398***	0.338*	0.357***	-0.114*
per_2015	1.887***	0.245	1.518***	0.385*	0.369***	-0.122*
per_2016	2.265***	0.517*	1.872***	0.685***	0.394***	-0.120*
per_2017	2.482***	0.691**	2.097***	0.851***	0.385***	-0.163**
coh_1958	0.086	-1.617***	0.010	-1.075***	0.076	-0.604***
coh_1959	0.094	-1.609***	0.017	-1.036***	0.077	-0.592***
coh_1960	0.151	-1.567***	0.021	-1.060***	0.130	-0.533***
coh_1961	0.201	-1.478***	0.025	-0.984***	0.176	-0.476***
coh_1962	0.274	-1.400***	0.049	-0.955***	0.225(*)	-0.418***
coh_1963	0.678	-0.993***	0.344	-0.640***	0.334**	-0.297***
coh_1964	0.848(*)	-0.795***	0.425	-0.552***	0.422***	-0.201***
coh_1965	1.057*	-0.519**	0.551	-0.439**	0.507***	-0.107*
coh_1966	1.249**	-0.356*	0.680(*)	-0.308*	0.570***	-0.019

coh_1967	1.411**	-0.155	0.792*	-0.199	0.619***	0.039
coh_1968	1.581**	0.009	0.921*	-0.093	0.661***	0.091*
coh_1969	1.718***	0.228	1.026**	0.043	0.692***	0.133**
coh_1970	1.853***	0.344(*)	1.136**	0.147	0.717***	0.168***
coh_1971	2.017***	0.533**	1.253**	0.312*	0.764***	0.227***
coh_1972	2.158***	0.721***	1.365***	0.388*	0.793***	0.259***
coh_1973	2.324***	0.866***	1.489***	0.549***	0.835***	0.325***
coh_1974	2.598***	1.167***	1.718***	0.820***	0.880***	0.377***
coh_1975	2.736***	1.335***	1.811***	0.920***	0.924***	0.438***
coh_1976	2.856***	1.481***	1.893***	1.006***	0.963***	0.486***
coh_1977	3.012***	1.656***	1.985***	1.092***	1.027***	0.553***
coh_1978	3.074***	1.753***	2.026***	1.169***	1.048***	0.593***
coh_1979	3.030***	1.699***	1.972***	1.050***	1.058***	0.613***
coh_1980	2.961***	1.681***	1.919***	1.021***	1.041***	0.617***
coh_1981	2.711***	1.429***	1.772***	0.901***	0.939***	0.521***
coh_1982	2.483***	1.172***	1.685***	0.827***	0.798***	0.385***
coh_1983	2.278***	1.009***	1.584***	0.732***	0.694***	0.297***
coh_1984	1.895***	0.649**	1.366***	0.500**	0.529***	0.139**
coh_1985	1.731***	0.476*	1.280***	0.456**	0.451***	0.068
coh_1986	1.539**	0.302	1.203***	0.369*	0.336**	-0.026
coh_1987	1.195**	-0.008	1.014**	0.169	0.182	-0.174***
coh_1988	0.983*	-0.205	0.864*	0.067	0.118	-0.221***
coh_1989	0.963*	-0.190	0.834*	0.072	0.129	-0.199***
coh_1990	1.061*	-0.090	0.860*	0.065	0.202(*)	-0.120*
coh_1991	1.216**	0.099	1.036**	0.253(*)	0.181	-0.124**
coh_1992	1.246**	0.129	1.093**	0.291*	0.152	-0.146**
coh_1993	1.067*	0.032	0.990*	0.188	0.078	-0.204***
coh_1994	0.971*	-0.048	0.946*	0.167	0.025	-0.243***
coh_1995	0.847(*)	-0.188	0.878**	0.097	-0.031	-0.291***
coh_1996	0.675	-0.318(*)	0.645	-0.132	0.030	-0.222***
coh_1997	0.472	-0.499**	0.409	-0.340*	0.063	-0.177***
coh_1998	0.308	-0.665***	0.263	-0.470**	0.045	-0.185***
coh_1999	0.145	-0.812***	0.108	-0.597***	0.037	-0.189***
coh_2000	-0.010	-0.961***	-0.069	-0.805***	0.059	-0.146**
coh_2001	-0.559	-1.479***	-0.596	-1.314***	0.037	-0.165**
coh_2002	-0.388	-1.266***	-0.447	-1.207***	0.059	-0.129*
coh_2003	-0.661	-1.551***	-0.721*	-1.466***	0.060	-0.122
coh_2004	-1.121	-	-1.183*	-	0.062	-
rescacoh	-	-13.881***	-	4.801***	-	1.324***
rescaage	-	-2.187***	-	0.546***	-	1.817***
_cons	-1.358**	-17.031***	-0.913**	-35.447***	-0.445***	-0.518***

주) ***p<0.001; **p<0.01; *p<0.05; (*)p<0.1

(2) 시대 집단의 범죄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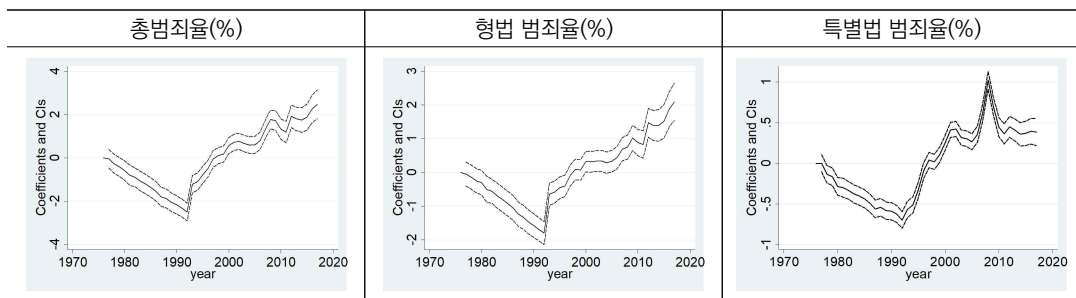
첫째, 총범죄율에 관한 시대 집단의 영향력은 1977년~1992년의 시대 집단까지는 계속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년범죄의 데이터의 통계적 수집과 소년범죄의 범위 분류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범죄자료의 수집 방법이 조정된 1993년 이후부터 시대 집단의 영향력은 증가하여 총범죄율에 대해 정(+)의 회귀계수 값을 가진다. 총범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8년 시대 집단과 비교하여 2017년 시대 집단의 범죄 영향력은 약 2.48배 크다. 시대적으로 총 소년범죄율에 관한 영향력은 20년간(1998~2017년) 연평균 12.4% 증가하였다(연간 증가율=(2017년의 b = 2.482)/20년 (=2017-1998+1)). 따라서 연간 범죄율의 증가에 관한 시대 집단의 영향력은 강하고 소년범죄는 비교적 큰 폭의 꾸준한 선형 증가세를 보였다.

둘째, 소년 형법 범죄율(%)에 관한 시대 집단의 영향력을 보면, 1998년 시대 집단부터 회귀계수가 정(+)의 값을 보여 2017년 시대 집단의 소년범죄 영향력인 회귀계수 값이 약 2.097배 증가하였다. 이를 시대 집단의 형법 범죄에 관한 연간 영향력으로 계산하면 연간 10.5%(2017년의 b=2.097)/20년(=2017-1998+1))로 매우 크다. 따라서 소년 형법 범죄에 대한 시대 집단의 영향력은 1998년~2017년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급증세가 지속되는지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소년범죄 특별법 범죄율에 관한 시대 집단의 영향력을 보면, 1998년부터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비교적 낮다. 특별법 범죄율에 대한 영향력으로 계산하면, 시대 집단의 연간 영향력은 1.9%(2017년의 b=0.385)/20년(=2017-1998+1))로 다른 범죄의 영향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런 시대 집단의 범죄 발생 영향력을 사회적 쟁점과 연계하여 논의하면, 범죄의 통계 수집과 분류가 달라진 이후 1998년부터 총 범죄와 형법 범죄의 증가에 관한 시대 집단의 영향력은 둘 다 괄목할만하게 크다. 하지만, 특별법 범죄율에는 같은 시대 집단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은 특별법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총 범죄와 형법 범죄의 증가에 영향이 커서 최근일수록 소년범죄가 잘 관찰된다고 분석된다. 즉, 시대변화에 총 범죄와 형법 범죄도 모두 증가하여 소년범죄의 원인 발견과 예방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림 4〉 시대 집단의 범죄 영향력(APC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1992년도 이후 총범죄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형법 범죄율도 선형적·장기적 추세로 증가하였다. 특별법 범죄율도 2010년도 초반까지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총범죄

율과 형법 범죄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영향력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 다소 낮지만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이에 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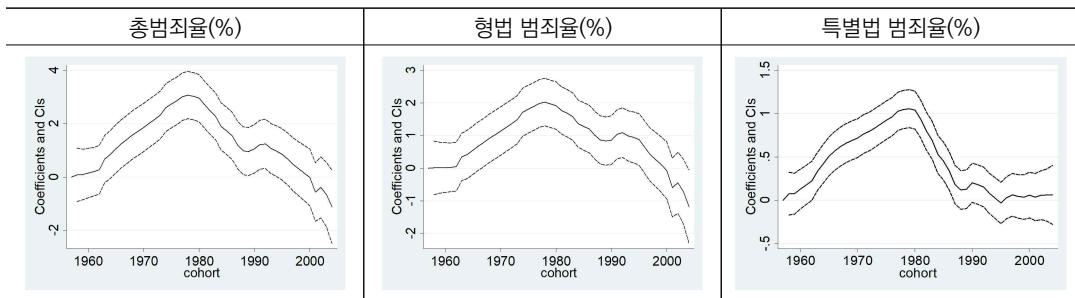
(3) 동료집단의 범죄 영향력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비슷한 시대에 소년기를 거친 집단의 범죄 발생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 시대에 소년기를 거친 집단 간 범죄 발생 영향력은 편차가 크다. 첫째, 총 범죄에 관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1958년부터 1978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1978년 동료집단이 최정점을 보인 후 하락하여 1998년 동료집단에서 최저치에 가깝게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패턴은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범죄율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 1978년을 기준으로 보면 역 U-자형의 영향력을 보인다. 즉, 1958년부터 1978년 동료집단까지 21년 동안 동료집단의 범죄 영향력은 증가하다가 1978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이 집단의 범죄 영향력은 하락하였다.

둘째, 각 동료집단이 가진 범죄 영향력을 범죄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58년부터 1978년까지 총 범죄에 대한 동료집단의 연간 영향력은 14.2%((1978년의 $b = 3.074$)-(1958년의 $b = 0.086$)/21년(=1978-1958+1))로 크다. 즉, 1972년에 소년기에 들어선 1958년 동료집단부터 1997년에 소년기를 마치는 1978년 동료집단까지 21년 동안의 동료집단은 매년 약 14.2%의 총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1978년 동료집단 이후부터 40년 동안 연간 10.5%의 총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58년~1978년까지 형법 범죄에 관한 동료집단의 연간 영향력은 9.6%((1978년의 $b = 2.026$)-(1958년의 $b = 0.010$)/21년(=1978-1958+1))로 비교적 크다. 이와 대조적으로 1978년 동료집단부터 40년 동안 형법 범죄에 관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연간 8.0%의 범죄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1958년~1978년 동료집단까지 동료집단의 특별법 범죄에 관한 연간 영향력은 4.6%((1978년의 $b = 1.048$)-(1958년의 $b = 0.076$)/21년(=1978-1958+1))로 비교적 작다. 이와 대조적으로 특별법 범죄에 관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하락하였는데, 1978년 동료집단부터 40년 동안 연간 2.5%의 특별법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5〉 동료집단의 범죄 영향력(APC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보면, 범죄율의 증가나 감소에 관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총 범죄 - 형법 범죄 - 특

별법 범죄의 순으로 나타났다. 1958년도 동료집단과 비교하여 1978년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총 범죄에 약 300%, 형법 범죄에 약 200%, 특별법 범죄에 약 100%의 증가세를 보여 범죄 유형에 따른 동료집단의 영향력 순위 차이는 확연하다.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선형적이지 않고, 총범죄율과 형법 범죄율에 관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특별법 범죄율에 관해서는 1990년 동료집단부터 영향력이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비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형추세 제거를 위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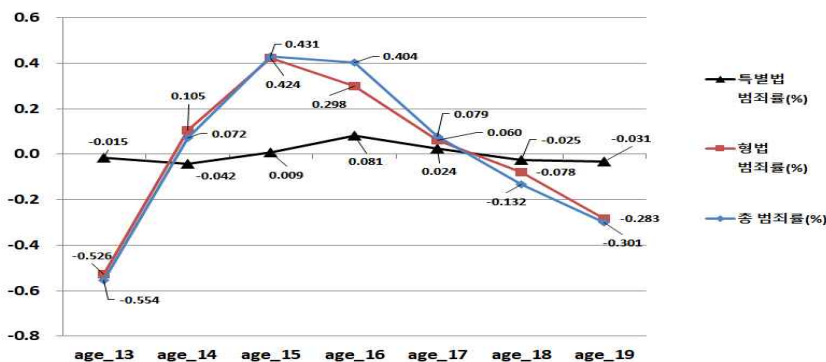
2) APCD 기법의 분석 결과

선형적 추세를 제거하고 단기적 추세가 존재하는지를 더욱 정교하게 재분석하였다.

(1) 연령집단의 범죄 영향력

첫째, 총범죄율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13세 집단은 낮은 범죄율을 보이다가 15세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다시 16세부터 연령집단의 범죄 발생 영향력은 낮아졌다. 약 15세와 16세 연령집단의 총범죄에 관한 영향력은 유사한 가운데, 18세 연령집단부터는 총범죄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연령집단 간 총범죄율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17세 연령집단보다 범죄 발생 영향력이 가장 큰 15세 연령집단이 약 5.5배 정도 더 높다($b(\text{age}15) = 0.431 / [b(\text{age}17) = 0.079]$ vs = 5.448). 하지만, 영향력의 강도를 기준으로 보면, 14세보다 1살 더 많은 15세가 되면 통계적으로 총 범죄의 발생 영향력이 0.431% 더 높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향력은 미미하여 사회인은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없다. 또한, 19세가 된 연령집단은 총 범죄의 발생 영향력이 약 0.301% 하락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잘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6〉 연령집단의 범죄 영향력(APCD 분석 결과)



둘째, 형법 범죄율에 관한 연령집단의 범죄 영향력을 보면, 회귀계수가 4세의 연령집단에서 -0.526이던 것이 19세 연령집단에서 -0.283으로 낮아졌다. 즉, 형법 범죄의 가능성은 14세 연령집단보다 19세 연령집단이 오히려 더 낮다. 연령집단의 형법 범죄에 관한 영향력은 14세 집단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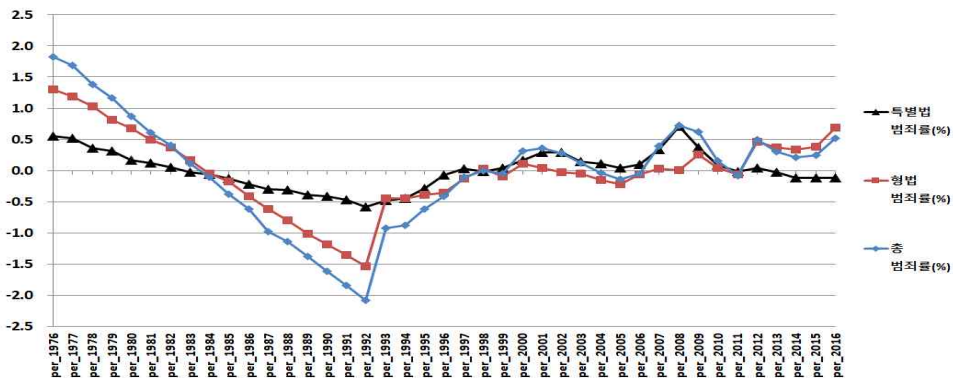
증가하여 15세 집단에서 최고이다가 19세 연령집단까지 하락하였다. 이런 추세는 총범죄율과 유사하다. 따라서 14~16세 연령집단까지 형법 범죄의 가능성이 커서 저연령 소년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이 우선 필요하다.

셋째, 특별법 범죄율(%)에 관한 연령집단의 영향력을 보면, 연령대와 관계없이 대체로 낮다. 특별법 범죄의 발생률에 관한 14세 연령집단의 회귀계수는 -0.526이며, 19세 연령집단의 회귀계수가 -0.283으로 서로 유사하다. 연령집단이 14세~17세까지 회귀계수는 양의 값이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영향력은 크지 않다. 다만, 연령집단의 나이가 증가해도 특별법 범죄율은 급속하게 감소하지 않아 총 범죄와 형법 범죄의 감소와는 차별적이기에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시급함을 보인다.

(2) 시대 집단의 범죄 영향력

첫째, 총범죄율의 영향력은 1976년~1992년 시대 집단까지 계속 하락하였다. 범죄자료 수집이 조정된 1993년 이후부터 총범죄율에 관한 시대 집단의 영향력은 서서히 증가하여 2000년 시대 집단부터 총범죄율에 관한 영향력이 정(+)의 회귀계수 값으로 변화했다. 총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17년 시대 집단의 회귀계수는 0.691이 되어 1992년 시대 집단의 회귀계수인 -2.082과 비교하여 약 2.773 이상 그 영향력이 크다. 시대적으로 총 소년범죄율에 관한 영향력은 20년간(1998~2017년) 연평균 4.3%씩 증가하였다(연간 증가율 = (2017년의 b = 0.851)/20년(=2017-1998+1)). 따라서 연평균 범죄율의 증가에 관한 시대 집단의 영향력이 강하여 소년범죄는 적지만 꾸준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7> 시대 집단의 범죄 영향력(APCD 분석 결과)



둘째, 소년의 형법 범죄율에 관한 시대 집단의 범죄 영향력을 보면,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력을 보이던 것이 1998년 시대 집단부터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b=0.027). 즉 1992년과 비교할 때, 2017년 시대 집단의 회귀계수 값이 0.851로 약 0.824 더 크다. 이를 연간 증가율에 관한 영향력으로 계산하면, 형법 범죄율(%)에 관한 시대 집단의 영향력은 연간 12.4%(2017년의 b = 2.482)/20년(=2017-1998+1))로 매년 소년 형법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총범죄율과 유사하게

1998년~2017년 시대 집단까지 소년 형법 범죄에 대한 영향력이 선형적인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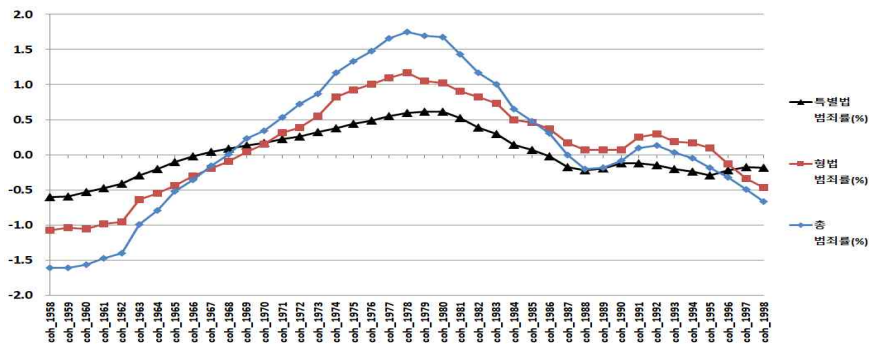
셋째, 소년 특별법 범죄율(%)에 관한 시대 집단의 영향력을 보면, 총범죄율과 형법 범죄율과 유사하게 1998년부터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작다. 특별법 범죄율의 연간 증가율에 관한 영향력을 계산하면, 시대 집단의 영향력은 -0.8% (2017년의 $b = -0.163$)/20년 (=2017-1998+1)로 나타나 다른 범죄의 영향력과 달리 감소하였다.

이런 시대 집단의 범죄 발생 영향력을 요약하면, 1998년 이후 총 범죄와 형법 범죄의 증가에 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시대 집단은 특별법 범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시대적 상황은 특별법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총 범죄와 형법 범죄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최근일수록 소년범죄가 더 잘 목격된다. 따라서 시대 상황이나 환경 요인으로 인해 총 범죄와 형법 범죄가 증가하기에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소년범죄 예방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총범죄율에 관한 시대 집단의 영향력은 1992년도 이후 선형적 증가추세이었으며, 형법 범죄에 관해서도 선형적·장기적 추세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특별법 범죄율도 2010년도 초반까지는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영향력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 어느 정도 낮아진 후 정체되었다.

(3) 동료집단의 범죄 영향력

동료집단의 범죄 영향력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비슷한 시대에 소년기를 거친 집단의 범죄 발생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동료집단의 범죄 발생 영향력에서 차이가 크다. 첫째, 총 범죄에 관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1958년부터 상승하다가 1978년 동료집단에서 최고값을 기록한 후 하락하여 1998년 동료집단에서 최저치에 다다랐다. 이와 같은 패턴은 모든 유형의 범죄율에 관한 동료집단의 영향력이 유사하여 1978년을 중심으로 역 U-자형의 영향력을 보인다. 즉, 1958년~1978년 동료집단까지 21년의 동료집단의 범죄 영향력은 증가하다가 1979~2004년까지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하락하였다.

〈그림 8〉 동료집단의 범죄 영향력(APCD 분석 결과)



둘째, 각 동료집단의 범죄 영향력을 범죄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58년~1978

년까지의 동료집단이 총 범죄에 대한 영향력은 연간 16.0%((1978년의 $b = 1.753$)-(1958년의 $b = -1.617$)/21년(=1978-1958+1))로 크다. 즉, 1972년에 13세 이상의 소년기에 들어선 1958년 동료집단부터 1997년에 19세로 소년기를 마치는 1978년 동료집단까지 21년 동안의 동료집단은 매년 총 범죄 16.0%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58년~1978년의 동료집단까지 동료집단의 형법 범죄에 관한 영향력은 연간 10.7%((1978년의 $b = 1.169$)-(1958년의 $b = -1.075$)/21년(=1978-1958+1))로 강하다. 마지막으로 1958년~1978년의 동료집단까지 특별법 범죄에 관한 연간 영향력은 5.7%((1978년의 $b = 0.593$)-(1958년의 $b = -0.604$)/21년(=1978-1958+1))로 비교적 작다.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범죄율의 증가나 감소에 관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총 범죄-형법 범죄-특별법 범죄의 순이다. 특히 1978년 동료집단 이후 소년범죄에 관한 영향력이 낮아졌는데, 이는 각종 정부 시책과 교육 현장의 지도 등으로 동료집단 또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 하락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범죄율에 관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하지 않아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시급함을 보인다.

2) APC와 APCD의 분석 결과 비교

APC 기법과 APCD 기법으로 총범죄율에 관한 연령집단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첫째, 연령집단에 관한 APCD 기법과 APC 기법의 분석 결과는 유사하여 총범죄율과 형법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APC 기법 결과와 달리 APCD 분석 결과에서는 두 범죄율이 15세까지 증가한 후 하락하였다. 또한, APC의 분석 결과에서는 특별법 범죄율이 선형적 추세로 급증하였지만, APCD의 결과는 오히려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둘째, 시대 집단에 관한 APC 분석 결과를 보면, 총범죄율은 1993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형법 범죄율은 1998년 이후부터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APCD 분석 결과에서는 1992년 시대 집단까지 오히려 모든 범죄의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셋째, APC와 APCD의 분석 결과 모두에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1990년 동료집단까지 증가하다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다만, 총범죄율, 형법 범죄율, 특별법 범죄율에 관한 영향력의 강도를 비교하면, APC보다 APCD 결과의 영향력 강도가 절반 정도 낮아 U자형의 완만한 추세를 보인다. 즉, APCD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3개 범죄율이 급증하지 않아 비선형적인 추세를 가정한 APCD 분석 방법이 더 타당하다는 점이다.

APCD 분석 결과가 더 바람직하다면, 연령집단의 회귀계수는 최대 0.4, 시대 집단의 회귀계수는 최대 1.8, 동료집단의 회귀계수는 최대 1.8이어서 범죄예방의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회귀계수값이 작은 연령집단보다 시대 집단과 동료집단에 관한 범죄예방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더 나아가 최근 범죄율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령집단의 회귀계수는 약 -0.3, 시대 집단의 회귀계수는 약 0.7, 동료집단의 회귀계수는 약 -0.7이기에 회귀계수가 큰 시대 집단의 범죄예방에 우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범죄가 발생한 연도나 시점에 따라 범죄증감의 차이가 큼이 밝혀졌으므로 2~3년 정도 시기에 범죄 증가가 두드러지면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단기간 소년범죄의 변화에 관한 분석 결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범죄예방의 바람직한 대안 마련과 정책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소년범죄의 장기적 추이 고찰과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소년범죄의 특징과 추세, 범죄의 영향 요인, 범죄증감의 연령, 시기, 동료 효과에 관한 기존 문헌을 두루 고찰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1982년부터 소년 형법 범죄의 비중이 성인 형법 범죄의 비중을 계속 초과하였으며, 소년 형법 범죄의 비중이 성인보다 훨씬 높아 사회적으로는 소년 형법 범죄가 두드러졌다. APC 기법과 APCD 기법의 통계량을 비교한 결과, 선형적인 추세의 분석이 부적절하였다. APCD 분석 결과에서는 15세까지 두 범죄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 하락하였다. 즉, 1992년 시대 집단까지 모든 범죄의 영향력이 감소하다가 증가하였지만, 선형적 급증세는 없었다. 총범죄율, 형법 범죄율, 특별법 범죄율에 관한 영향력의 강도를 비교하면, APC 분석 결과보다 APCD 분석 결과가 1/2 정도 낮아 U자형의 완만한 추세를 보인다. APCD 분석 결과가 더 바람직하다면, 회귀계수값을 기준으로 본 최근 범죄율의 영향력을 판단하건대 시대 집단의 범죄예방에 더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정책제언

APCD 분석 결과 중 영향력의 관점에서 회귀계수는 시대 집단과 동료집단이 유사하고, 연령집단이 그다음이기에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는 회귀계수가 커서 영향력이 큰 시대 집단이나 동료집단에 대한 예방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범죄율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볼 때 회귀계수는 시대 집단 - 연령집단-동료집단의 순이어서 시대 집단에 관한 범죄예방의 노력이 더 집중될 때 소년범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통상적으로 특정 연령대가 범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사고를 지양하고 소년범죄의 급증기나 시대환경에 따른 소년범죄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더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시대 집단이 겪는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범죄율의 급증이 나타난다면, 이를 소년범죄 증가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적극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범죄의 예방에서 시대 집단이 중요하다면, 전체적인 범죄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 소년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추세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 즉, 특정 시기에 소년범죄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종단적 관점에서 사건이나 상황 변화의 추세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디어 기기의 발달, 가상 현실(metaverse)의 등장, 성인 범죄 모방성 소년범죄, 가정과 학교의 상황 및 기능 변화 등을 장기적 추세에서 조망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선제적으로 찾는 노력이 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어떤 시대적 특징이 소년범죄의 발생 및

재발을 촉진하는지를 시기적 여건과 연계하여 분석해야 한다. 특히, 특별한 정부 사업의 시행 전에 교통 영향 평가 등의 사전 분석을 하는 것처럼 특정 사건이나 재화나 시스템의 변화가 특별히 소년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분석하는 '(가칭)소년범죄 영향평가' 등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년에게 매우 자극적이거나 소년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환경적 인자를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발굴·추적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노력할 때 소년범죄가 크게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일원. (2019). 10대 청소년범죄의 흉폭화에 관한 분석과 새로운 경향성과 그 해법.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0, October): 739-751.
- 강태신·임영식. (2008).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5(3): 77-93.
- 권해수·윤일홍. (2015). 청소년 탈 비행 과정에 관한 고찰: Sampson과 Laub의 생애과정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6(4): 185-212.
- 김수정·정익중. (2017).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사회복지학』, 69(3): 9-33.
- 김은경.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1159-1188.
- 김준호·남재봉·박외현 외. (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13-147.
- 김준호·박정선. (1991).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220.
- 김준호·이동원. (1990).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김지선. (2007). 청소년 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 1966-2005년. 『형사정책』, 19(2): 56-86.
- 노성호. (2009). 청소년 비행의 추세분석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9-39.
- 민수홍. (1997).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219.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 27-47.
- 박경돈. (2014). 산업재해발생의 인구조적 이해. 『지방정부연구』, 18(3): 183-204.
- 박경돈·박민정. (2010). 지방자치단체 담장허물기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범죄예방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4(1): 203-223.
- 법무부. (2018).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
- 손병덕·김정민. (2017). 위기 청소년의 범죄 피해경험에 일탈행동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한국범죄학』, 11(2): 89-110.
-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

- 학연구」, 7(2): 117-136.
- 윤진·곽금주. (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53-94.
- 이선우·황은경. (2014). 가족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청소년의 가족경험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3): 599-625.
- 이성식. (2003).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15: 85-105.
- 이성식. (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 이순래. (2007). 소년사범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1047-1080.
- 이현정·최재훈. (2019).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해체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2(2): 67-86.
- 임재식. (2008). 소년범죄 현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8(2): 115-141.
- 전병재. (1990). 형사정책연구의 기본방향: 사회학의 관점. 「형사정책연구」, 27-40.
- 전영실·신동준·박상희 외.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32.
- 정익중. (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 조영오. (2019). 자기통제와 친구관계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비행친구와 친사회적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3(1): 49-68.
- 조준현. (2004). 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저스티스」, 153-181.
- 진혜민·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최수형·박현수·박상옥. (2014).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50.
- 최영신·한민경·라광현 외. (2018).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 (I): 범죄학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00.
- 통계청. (2021). KOSIS 통계자료.
- 현다경·김형모. (2018). 청소년의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및 지역사회환경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인식 및 정서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4): 1-26.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gnew, R. (2017). General Strain Theory: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In *Taking Stock* (pp. 101-123). Routledge.
- Broidy, L. & Santoro, W. A. (2018). General Strain Theory and Racial Insurgency: Assessing the Role of Legitimate Coping. *Justice Quarterly*, 35(1): 162-189.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55-71.
- Browning, M., Crawford, I., & Knoef, M. (2012). The Age-Period Cohort Problem: Set Identification

- and Point Identification (No. CWP02/12). Cemmap Working Paper.
- Chauvel, L. (2013). Welfare Regimes, Cohorts and the Middle Classes. Income Inequality: Economic Disparities and the Middle Class in Affluent Countries, 115-141.
- Chauvel, L. & Schröder, M. (2015). The Impact of Cohort Membership on Disposable Incomes in West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3): 298-311.
- Church II, W. T., Tomek, S., Bolland, K. A., et al. (2012).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redictors of Delinquency: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Mobile Youth Surve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2400-2408.
- Cloward, R. A. & Ohlin, L. E. (1960). Illegitimate Means and Delinquent Subcultures. *Social Deviance: Readings in Theory & Research*, 45-49.
- Greenberg, D. F. & Larkin, N. J. (1985). Age-Cohort Analysis of Arrest Rate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3): 227-240.
- Hipp, J. R. & Wickes, R. (2017). Violence in Urban Neighborhoods: A Longitudina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and Violent Crim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3(4): 783-808.
- Holzer, H. J., Schanzenbach, D. W., Duncan, G. J. et al. (2008). The Economic Costs of Childhoo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hildren and Poverty*, 14(1): 41-61.
- Loeber, R. & Farrington, D. P. (1998).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Sage Publications.
- Loeber, R., Stouthamer-Loeber, M., & Green, S. M. (1991). Age at Onset of Problem Behaviour in Boys, and Later Disruptive and Delinquent Behaviours.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1(3): 229-246.
- Macdonald, J. M., Haviland, A., & Morral, A. R. (2009).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and Nonviolent Criminal Activity among Serious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6(4): 553-580.
- Reingle, J. M., Jennings, W. G., & Maldonado-Molina, M. M. (201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Trajectories of Violent Delinquency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Early Adolescent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0(3): 261-277.
- Shumaker, D. M. & Mckee, G. R. (2001). Characteristics of Homicidal and Violent Juveniles. Violence and Victims, 16(4): 401-409.
- Simons, R. L., Johnson, C., Conger, R. D., & Lorenz, F. O. (1997). Linking Community Context to Quality of Parenting: A Study of Rural Families. *Rural Sociology*, 62: 207-230.
- Wikström, P. O. H. (2006). Individuals, Settings, and Acts of Crime: Situational Mechanisms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The Explanation of Crime: Context, Mechanisms and Development*, 61-107.
- Wikström, P. O. H. (2010). Situational Action Theory: Oxford Bibliographies Online Research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 Wikström, P. O. H., Oberwittler, D., Treiber, K. et al. (2017). Situational Action Theory. In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ical Theories*(pp. 125-170). Routledge.
- Wikstrom, P., Ceccato, V., Hardie, B., et al. (2010). Activity Fields and the Dynamics of Crim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6(1): 55-87.
- Wilmoth, J. R. (1990). Variation in Vital Rates by Age, Period, and Cohort. *Sociological Methodology*, 295-335.

박경돈(朴景墩):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록펠러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아동가족청 본청(Office of Children & Family Services/ Albany)의 연구원과 한국 행정연구원(KIPA)의 정책서비스연구부 부장, 국립 한국교통대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에서 교수로 근무 중이다. 주요 전공분야는 정책계량분석, 복지보건정책, 공공관리론, 미래연구 등이다 (pkdon0525@pusan.ac.kr).

Abstract

An Age-Cohort-Period Analysis on the Trend of Youth Delinquency

Park, Kyoung Don

This paper assumes that juvenile delinquency may not properly prevented, as the analysis of short-term youth delinquency but long-term one is used. The aim of this paper is that the prevention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youth delinquency could be done with an analysis of longitudinal patterns of youth crime. In a literature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 of youth crime, the effects of year, youth age, youth cohort are summarized. The result from the Detrended APC(APCD) model show that we were concerned with the phenomen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respective prevention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youth crime.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the proportion of juvenile criminal law offenses has consistently exceeded that of adult criminal law offenses since 1982.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juvenile criminal law offenses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adults, as juvenile criminal law offenses were more prominent in society.

The comparison between the effects from APC and APCD model indicates that the APC outcomes overestimate the influence of the group effects. The strength of the influence on the total crime rate, criminal law crime rate, and special law crime rate is about 1/2 lower than the APC analysis result, showing a gentle U-shaped trend. The total crime rate and the criminal law crime rate increased until the age of 15 and then decreased. Also, the influence of all crimes decreased until the age group in 1992 and then increased, but there was no linear increa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PCD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the recent crime rate, the most important is the effort to prevent crime through policy intervention on the age group.

Key Words: Cohort Analysis, Total Crime Rate, Criminal Law Crime Rate, Special Law Crime Rate, APC method and APCD method